산업재해율 최저치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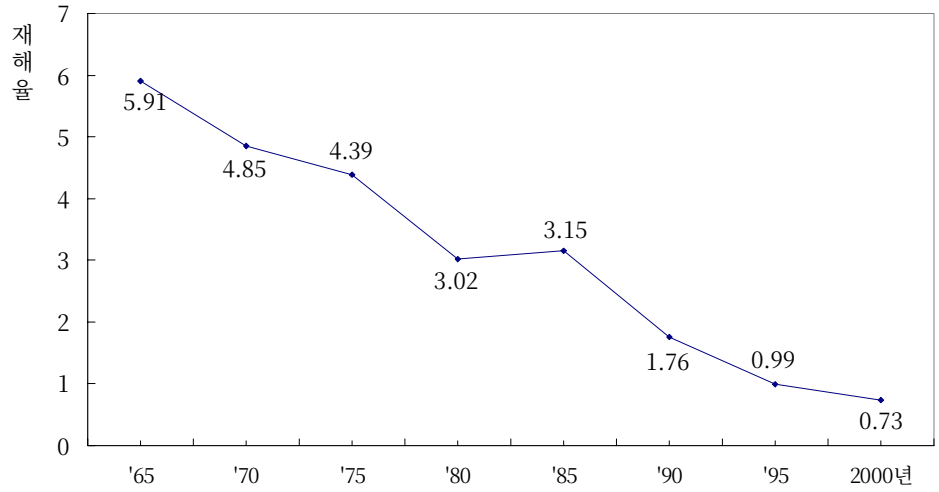
2000년 0.73% … 예방기금 설치 이후 계속 감소

2000년 산업재해율은 0.73%로 3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노동부에 따르면, 재해자수를 근로자수로 나눠 산출하는 산업재해율은 1965년 5.91%를 기록한 이후 2000년에는 0.73%를 기록, 36년 동안 약 88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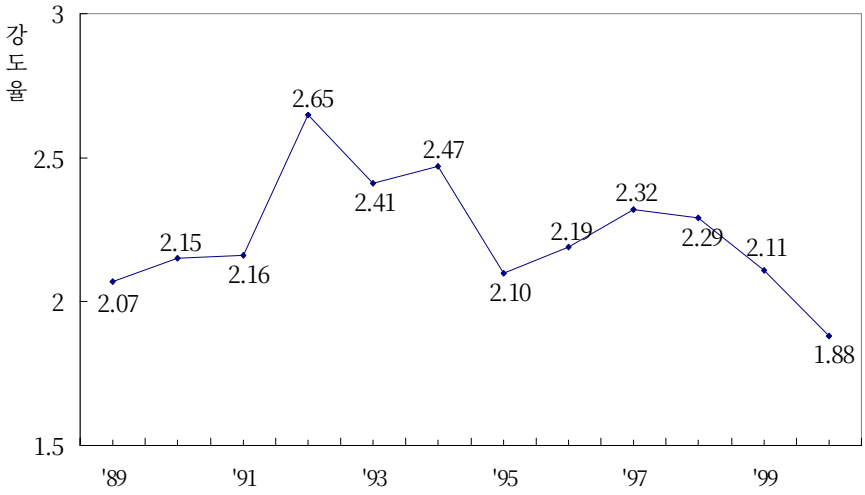
2000년 산업재해자수는 6만8976명이며, 이중 사망자수는 2528명, 신체 장애자수는 1만9784명, 부상 및 질병자수는 4만6664명으로 나타났다.

산업재해율 추이



근로자수는 1964년 8만1798명에서 2000년 948만5557명으로 무려 116배 증가했으며, 재해자수는 1964년 1489명에서 2000년 6만8976명으로 약 46배 증가했다.

산업재해 강도율 추이



+ 강도율=근로손실일수/근로시간수(연간)×1000

사망자수는 1964년 33명에서 2000년 2528명으로 약 77배 증가했으며, 산업재해율은 1965년에 5.91%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00년 0.73%로 낮아짐으로써 36년 동안 약 88% 감소했다.

재해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은 1989년 2.07을 기록한 이후 매년 등락을 반복하다 199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0년 1.88를 기록, 11년 동안 약 9.2% 감소했다.

산재예방기금 설치 전후의 재해율은 1990년 1.76%에서 1991년 산재예방기금을 설치한 이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확대에 힘입어 2000년에는 58.5%가 감소한 0.73%를 보여 산재예방기금이 재해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Chemical Daily News 2001/08/08>